

미중 무역협상 마무리...美대표단 "잘 되어 가"

美대표단 협상 마치고 귀국길
고위급 협상 이어질 가능성
하루 연장...합의 도출 관측

무역 전쟁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의 차관급 대표단 협상이 9일 마무리됐다. 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측 대표단의 일일인 테드 매키니 농무부 통상-해외농업 담당 차관은 이날 중국 베이징의 숙소인 웨스틴호텔에서 기자들에게 중국

측과의 협상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다고 밝혔다. 매키니 차관은 협상 진행 상황과 관련해 "좋은 며칠이었다"며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건 우리에게 좋은 일"이라고 부연했지만 더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제프리 게리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왕서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이끄는 미중 대표단은 7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미국산 에너지·농산물 구매 확대를 통한 미중 무역 불균형 개선, 지식재산권 보호, 중국의 차별적인 기업

보조금 정책 축소, 외자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장 진입 규제 완화 등 광범위한 주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다. 당초 협상은 7~8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9일 하루 더 연장됐다. 이를 두고 미중 양측이 협상 결렬과 무역전쟁 격화라는 파국을 선택하는 대신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아직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한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았지만 미국 대표단 측에서 일단 긍정적인 발언이 나온 만큼 양측이 최소한 부분적인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대화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

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8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중국과의 협상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중 양국 정부는 향후 각각 자국의 협상팀으로부터 자세한 결과를 보고받고 추가 협상에 나설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협의가 이뤄진다면 양국의 협상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이날 중 회동해 한중 진전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오른쪽)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장벽 건설 관련 대국민 연설에 맞대응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장벽 여론몰이' 민주와 극한대치

57억달러 장벽건설 예산 통과 촉구...최장기 섰다운 눈앞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대국민 TV 연설까지 동원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과 이를 위한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대적인 여론전을 벌였다. 그러나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강공에 맞서 장벽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면서 연방정부 일시적 업무 중지(셧다운)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고 나서 좀처럼 접점을 찾기 힘든 갈등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날 18일째로 접어들어 섰다운 사태는 역대 최장 기록(21일) 경신이라는 '불명예'를 목전에 두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방송사 황금시 간대(프라임 타임)인 오후 9시 백악관 집무실에서 TV를 통해 약 10분 가까이 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멕시코 국경에서 인도적 차원은 물론 안보 위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57억 달러 규모의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그는 불법 이민자들의 살인, 폭행 등 불법행위로 인해 미국인이 피해를 당한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국경을 확보하는 문제는 "옳은 것과 그른 것, 정의와 불의 사이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도 섰다운의 책임을 장벽 건설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는 민주당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이어 같은 분량으로 방송된 대국민 연설에서 트럼프 책임론을 부각하면서 물러서지 않았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을 인질로 잡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위기를 조정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다시 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정부 운영 재개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日관방 "징용기업 압류 승인 매우 유감"

"韓정부에 협의 요청할 것"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9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신청한 신일철주금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자산압류 신청 승인과 관련해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 정부에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그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 이래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법 위반 상태 시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했지만 아직 구체적 대응이 없다"고 지적했다. 스가 장관은 "(구체적 조치를 검토하라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지시에 따라 정부가 하나 둘 만의 대응을 하기 위해 오늘 오후 관계 각료가 모여 향후 대응 방침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까운 시점에 1965년 한일

정구협정의 규정에 따라 한국 정부에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일청구권협정은 협정 해석 및 실시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게 돼 있다. 스가 장관이 말한 협의는 외교상 경로를 통한 해결을 의미한다. 협정은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3국 위원도 참여하는 중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돼 있다. 스가 장관은 이날 오후 예정된 각료회의에서 논의될 내용에 대한 질문에는 "한국과의 관계 및 일본 기업의 경제활동 보호를 포함한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부터 관계 성정(省廳-부처)에서 대응책을 검토해 온 만큼 이를 토대로 확실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베이징역 떠나는 김정은 전용열차. 서울 간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9일 베이징역을 출발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전용 열차 주변에 경찰들이 삼엄한 경비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북중 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 시그널
늦어도 3월초 개최"
美전문가들 전망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8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차 중국 방문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그널'로 풀이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차 담판'을 앞두고 중국을 지렛대 삼아 입지를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해석했다. 미 보수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논평에서 "김 위원장의 이번 방문은 가까운 시일 내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2차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 물밑 논의가 물살을 타고 있음을 방증한다는 것이다.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이메일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시 주석과 회담에서 어떤 합의를 했는지는 추측만 할 뿐이지만, 이번 방중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아마도 2월에 열릴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끔 했다"고 말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경제연구소(KEI) 토론회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곧 정리될 것"이라며 "아마도 2월 말이나 3월 초 중 2차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美, 김정은 방중에 '신중 모드'...트럼프 'No 트윗'

2차 북미정상회담 영향 주목하며 면밀히 분석하는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차 중국 방문 및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회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대응을 삼가며 신중히 대처했다. 트럼프 정부는 북-중 우호 과시와 밀착이 새해 들어 흐름을 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에 미칠 파급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의 방중에 대한 연합뉴스의 논평 요청에 "중국 정부에 문의하라"며 말을 아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김 위원장의 베이징 방문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북-

중 정상회담이 열린 당일 베이징에서 진행된 미-중 무역협상에 대해서는 "잘 진행되고 있다"는 트윗을 올리며 관심을 드러낸 것과는 대조적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신중한 태도는 북미가 물밑 조율 중인 2차 북미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긴밀한 북-중 관계를 바탕으로 대미협상력을 높여려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는 북-중 밀착에 대한 미국 내 경제의 목소리에도 맥락이 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연합뉴스에 보낸 논평에서 "김 위원장이 생일에 방중에 4일간 머물며 시 주석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은 북-중 관계의 친밀감을 보여줌으로써 한반도에서 미국의 지렛대를 약화하고 중국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생일인 8일 오전 특별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오후 4시 30분께(현지시간)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과 만나 1시간 정도 회담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3, 5월 방중 후 6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는 점에서 이번 4차 방중의 다음 수순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여수에서 사고 좋은 땅-회사 사정상 급매

- 전남 여수시 봉강동343-2번지의 4필지, 대지 약540평 (343-2-141평, 343-1-260평, 344-30평 / 341-80평,340-4-30평)
- 세일신경외과 바로 옆
- 일반상업지역-90%, 준주거지역-10%, 6차선 도로접, 전면75M
- 대출-22억7000만원, 시세/감정가-약 40억
- 호텔/주상복합상가/메디컬센터등 모든업종 개발가능
- 매가 - 상담후결정
- 문의 - 010.3605.5000